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음 2월 6일)

제22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기재부 국제행사 대상 선정

도,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유치 전략달성 '청신호' 최종 심사 통과서 8월 IMG에 공식 유치 신청키로

전북도는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2 아태 마스터스 대회' 개최계획이 '기획재정부 2019년 국제행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2022 아태마스터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대응에 만전을 기한 결과,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대한체육회 승인 통과,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국제행사유치에 대한 사전심의 통과를 거쳐,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국제행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0년부터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심의 통과가 매우 중

요한 절차였던 만큼, 이번 선정으로 전북도의 '7년 연속 대규모 행사 유치'라는 전략달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앞으로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해 수행(4개월 소요, 3~7월)하며, 이후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의 최종심사위원회의 심의결로 국제행사 국고지원여부가 확정된다.
전북도는 국제행사개최에 대한 최종심사 통과에서 오는 8월 국제마스터스개입협회(IMG)에 공식적으로 유

치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유치 성공의 마지막 열쇠는 기재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달렸다고 보고, 정무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대응 TF팀을 구성(3월 4일)하여 이미 제출된 개최계획서를 기본으로 '2022아태마스터스대회'는 '왜 전북이어야만 하는가?'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필요성 논리, 대회 개최 유산의 발굴 등 대응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유치되면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의 지역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대회 운영 노하우 축적, 도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체육 거점으로서 위치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익산 김병순 고택 민속문화재 되다

여건에 맞는 건물 배치, 안채와 사랑채의 분리, 내부 복도를 통한 긴밀한 연결, 넓은 후원은 유교적 관습보다 실생활을 반영한 부농주거 특징을 나타낸다.
이 고택의 규모는 현존 전북 고택 중 최대다. 건축부재의 조각, 문양 등 장식기법도 뛰어나다. 붉은 벽돌과 우리 창호 등 근대기 건축 재료들이 가미돼 있어 건립 당시 시대상도 잘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가옥 공간에 내재한 유교적 질서체계와 배치형식, 의장기법, 건축재료 변화과정을 비교적 잘 표현해 준다. /익산=조용주 기자

익산시 함리면에 위치한 '익산 김병순 고택'이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됐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97호로 지정된 익산 김병순 고택은 익산 함리마을 3대 만석꾼 중 하나로 알려진 김병순(1894~1936)이 1920년대에 지은 집이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근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당시 부농의 생활과 건축양식 특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 보존가치가 높다.
근대기 가옥의 특성인 길과 대지

함라마을 만석꾼으로
1920년대에 지은 집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근대 변화 적극 수용
당시 건축양식 특징 유지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주한 스페인 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전주시청에서 오는 6월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세계문화주간 스페인문화주간'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주한 스페인대사 첫 공식방문지 '전주'

모로 대사, 취임 후 김승수 시장과 면담 '세계문화주간' 등 협의

주한 스페인대사가 취임 후 첫 공식 방문지로 전주를 선택했다.
전주시는 11일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주한 스페인대사가 전주시청을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 오는 6월로 예정된 전주세계문화주간 스페인문화주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및 전주-스페인 도시간 교류도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로 주한스페인대사의 이번 전주 방문은 전주시와 함께 오는 6월 플라멩코와 스페인영화, 스페인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전주세계문화주간 스페인문화주간 '홀라 스페인(Hola Spain!)' (가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주한스페인대사관은 오는 6월로 예정된 전주세계문화주간에서 정열의 국가 스페인을 담은 댄스 플라멩코와 독특한 스페인영화, 스페인의 대표 전통요리인 타파스와 와인 등을 전주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해외문화를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화주간을 통해 외국의 독창적인 문화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주의 우수한 문화를 스페인에 알린다는 구상이

다.
또한, 시와 주한스페인대사관은 이번 스페인 문화주간 동안 스페인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스페인아티스트를 초청, 스페인 현지의 정열적이고 화려한 문화를 전주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프랑스문화주간을 시작으로 2017년 영국문화주간, 2018년 미국문화주간을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문화강국들과 함께 문화 행사를 개최하면서 글로벌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시는 향후 주한스페인대사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전주세계문화주간 스페인주간의 자세한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대로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대한민국 지역문화지수 1위인 전주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참여하는 도시이지만, 다양한 해외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매년 열리는 전주세계문화주간을 통해 문화시민인 전주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우수한 전주의 문화를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로 주한스페인대사는 지난 1994년 주한스페인대사관 서기관으로 3년 여간 근무하고, 문화관련 참사관으로도 근무하는 등 한국과 문화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효철 기자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보건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의결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 건강과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 및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공기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위는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